

김서정의
절집나무이야기

⑥ 제주 관음사 삼나무

사느냐 죽느냐, 운명의 삼나무 영원하라

제주 불교의 중심 사찰 관음사는 한라산 650m 기슭에 있다. 이 지점은 식물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다. 식물의 수직적 분포가 뚜렷한 한라산에서 600m까지는 난대성 식물, 600~1400m까지는 온대성 식물, 그 위로는 한대성 식물이 자라고 있는데, 관음사와 그 일대에서는 난대와 온대가 겹쳐지고 있어 다양한 식물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20년대보다 연평균 기온이 1.6℃ 상승한 제주도도 지구 온난화 영향을 피할 수 없어 더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한라산처럼 넓고 크게 서 있는 관음사 일주문 앞에 서면 용마루 너머 하늘로 삐죽이 솟은 푸른 잎들이 궁금해진다. 오대산 월정사나 부안 내소사 전나무숲길이 파드득 떠오르지만 일단 전나무는 아닌 듯하여 돌담 옆으로 가 짧은 가지에 색이 바랜 채 달라붙어 있는 잎들을 주워본다. 보통 나무들은 잎만 떨어지는데, 가지째 떨어지는 나무로 편백나무와 삼나무가 있다. 생각을 좁혀서 살펴보니 편편한 잎을 가지고 있는 편백나무는 아니고, 바늘처럼 뾰족한 잎을 가지고 있는 삼나무다. 그래도 확신이 안 들어 뒤적거려보니 전체 가지가 떨어져 있지 않고, 잔가지로 떨어져 있는 게 바로 일본 원산의 삼나무로 동정해본다.

삼나무는 일본 한자인 삼(杉)을 그대로 부르기 때문인데,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삼나무는 전나무나 잎갈나무를 가리키는 것이기에 구분해서 봐야 한다. 일본의 삼나무는 임진왜란 때 배를 만드는 목재로 쓰였고, 태평양전쟁에서 패망하고는 건축 자재를 마련하기 위해 대거 심어 일본 전체 산림의 4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삼나무가 1924년부터 제주도에 식재되기 시작했는데, 일본과 비슷한 기후 덕분에 무난히 자라는 걸 넘어 일본보다 삼나무가 더 잘 자라는 최적지로 꼽히게 되었다. 그래서 1970년대에 들어서 한라산에 대거 삼나무를 조림했다.

제주도 내 최대 인공림 수종인 삼나무는 단순성 때문에 제주 경관과 생태계를 해친다는 이야기와 제주 삼나무로 건축을 하면 환경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공존하고 있다.



제주 관음사 삼나무

그 상황에서 한라산 삼나무들이 어떻게 될지 그 운명을 기다리고 있는데, 혼잡스러우면서도 우울한 느낌을 흰 눈처럼 사라지게 하는 현무암 부처님들을 보면서 관음사 안으로 직진해 간다.

하지만 대웅전으로 향하는 길은 '한라산 관음사 개산조 해월당 봉려관 스님 행적비' 에서 멈춘다. 제주 곳곳에 유채꽃이 피고 있지만 아직 남은 차가운 겨울바람에도 단아하면서도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봉려관 스님에게 얼른 목례를 한 뒤 행적비를 읽는데 마지막 문장에서 결기가 느껴진다.

"봉려관 스님은 조선조 억불정책으로 인한 200여 년간의 무불시대를 마감하고, 이 땅에 불교를 일으켜 세운 제주 불교 중흥조요, 선각자요, 애국지사다."

제주 관음사 역사는 1909년 전후로 기술될 수 있는데, 고려 성종 때 지리서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관음사 기록이 있었고, 조선시대에도 존재했는데 1702년 이형상 제주 목사에 의해 흔적 없이 사라지는 비운을 겪는다. 그러다가 1909년 해월굴에서 3년간 관음기도를 드린 봉려관 스님에 의해 창건되었는데, 스님이 입적한 1936년으로부터 3년이 지난 1939년 화재로 대웅전 등이 불에 탄다. 그래도 제주 불사를 멈출 수 없어 불심을 모아 관음사를 일으키고 있었는데, 1948년 4.3항쟁 시 토벌대에 의해 모든 전각이 전소되는 아픔을 겪는다. 지금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찾아갈 수 있는 관음사는 1962년 한라산 입산금지가 풀리면서 다시 시작된 불사가 일군 장엄의 모습인데, 그래서인지 비극의 역사까지 생각하게 해주는 관음사의 또 다른 자랑인 제주도기념물 제51호인 왕벚나무에서 활짝 핀 꽃을 보고 싶었지만, 피부에 감기는 공기는 시리기만 한 것 같다.

1911년 식재했다는 살아 있는 화석 은행나무를 지나 경내를 둘러본 뒤, 푸르게 관음사를 굽어보고 있는 곰솔 넘어 금빛 미륵대불과 현겁천불을 이루기 위해 푸근히 겨울햇살을 받고 있는 작은 아미타불,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약사여래불을 품어보고는 바람을 피해 보려고 해월굴에 들어가 본다.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을 곁에서 지키고 있는 촛불들의 따뜻한 열기가 언 몸을 스르르 녹인다. 보일러가 잠시만 멈춰도 냉기로 병이 날까봐 호들갑을 떠는 중생은 그저 고개 숙여 경외감만 표하고는 봉려관 스님 행적비 뒤에 슬그머니 선다.

"이 몸 타는 것이 걱정이 아니라 / 연기가 고르지 못할까 걱정이다. 낙조의 붉음을 따라 갔다가 / 또한 붉음을 보거든 나의 원력이 그런 줄 알아라."

부처 앞에서 깨달음으로 죽음을 삶과 하나로 연결시켜보고자 애를 써도 이 한 몸 없어지는 게 늘 걱정인 우매한 자는 푸르게 푸르게 도열하듯 서 있는 삼나무를 다시 올려본다. 개발이냐, 보존이냐,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는 제주의 삼나무들. 비운을 비껴가 타지 말고 오래도록 하늘 높은 걸 알리는 지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작가 겸 숲해설가〉



승한 스님의
불교시 감상

⑥ 조지훈의 '고사(古寺) 1'

'눈부신 노을'과 '모란' 치환된 정토와 깨달음

고사(古寺) 1 / 조지훈

목어(木魚)를 두드리다
졸음에 겨워
고오운 상좌 아이도
잠이 들었다.
부처님은 말이 없이
웃으시는데
서역 만리(西域萬里) 길
눈부신 노을 아래
모란이 진다.

(조지훈 시집, 〈趙芝薰–한국현대시문학대계 19〉, 지식산업사, 1982)

49세의 짧은 나이로 졸(卒)한 조지훈(1920~1968) 시인은 불교를 소재로 모두 5편의 불교시를 썼다. 위에 소개한 '고사(古寺) 1' 을 비롯해 '고사(古寺) 2', '승무(僧舞)', '앵음설법(鶯音說法)', '범종(梵鐘)' 이 그것이다. 드문 기회니만큼, 모두 맛보고 가보자.

"목련(木蓮)꽃 향기로운 그늘 아래/ 물로 씻은 듯이 조약돌 빛나// 흰 옷깃 매무새의 구층탑 위로/ 파르라니 돌아가는 신라천년(新羅千年)의 꽃구름이여// 한나절 조찰히 구르던/ 여흘물소리 그치고/ 비인 골에 은은히 울려오는 낮종소리.// 바람도 잠자는 언덕에서 복사꽃잎은/ 종소리에 새삼 놀라 떨어지노니// 무지개빛 햇살 속에/ 의희한 단청(丹靑)은 말이 없고…" - '고사(古寺) 2'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薄紗) 고깔에 감추오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빈 대(臺)에 황촉(黃燭)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이 접어올린 외씨보선이여.//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 개 별빛에 모도오고//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煩惱)는 별빛이라.//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뻗는 손이/ 깊은 마음 속 거룩한 합장(合掌)이냥 하고// 이 밤사 귀또리도 지새는 삼경(三更)인데/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 '승무(僧舞)'

"벽에 기대 한나절 조을다 깨면 열어제친 창(窓)으로 흰구름 바라기가 무척 좋아라./ 노수좌(老首座)는 오늘도 바위에 앉아 두 눈을 감은 채로 염주(念珠)만 센다./ 스스로 적멸(寂滅)하는 우주(宇宙) 가운데 먼지 앉은 경(經)이야 펴기 싫어라./ 전연(篆煙)이 어리는 골 아지랭이 피노니 떨기나무에 우짖는 꾀꼬리 소리./ 이 골안 꾀꼬리 고운 사투린 범패(梵唄)소리처럼 낭랑(琅琅)하고나./ 벽에 기대 한나절 조을다 깨면 지나는 바람결에 속잎 피는 고목(古木)이 무척 좋아라." - '앵음설법(鶯吟說法)'

"무르익은 과실(果實)이/ 가지에서 절로 떨어지듯이 종소리는/ 허공(虛空)에서 떨어진다. 떨어진 그 자리에서/ 종소리는 터져서 빛이 되고 향기가 되고/ 다시 엉기고 맴돌아/ 귓가에 가슴 속에 메아리치며 종소리는/ 웅 웅 웅 웅 웅...../ 삼십삼천(三十三天)을 날아오른다 아득한 것.// 종소리 우에 꽃방석을/ 깔고 앉아 웃음 짓는 사람아/ 죽은 자(者)가 깨어서 말하는 시간(時間)/ 산 자(者)는 죽음의 신비(神秘)에 젖은/ 이 텅하니 비인 새벽의/ 공간(空間)을/ 조용히 흔드는/ 종소리/ 너 향기로운/ 과실(果實)이여!" - '범종(梵鐘)'

모두 같은 시집에 실린 작품들이다. 읽기만 해도 '옛 절집[고사(古寺)]' 과 '중춤[승무(僧舞)]' 과 '꾀꼬리 울음소리[앵음설법(鶯吟說法)]' 와 '커다란 종[범종(梵鐘)]' 소리를 실제로 보고 듣는 것 같다. 승려도 아닌데 조지훈 시인은 어떻게 이리도 절절히, 절집의 내력을 알고, 승려의 은밀을 알고, 중춤의 섬세함을 알고, 범종소리의 울림을 잘 알까. '깨우친 승려[도승(道僧)]' 가 아니면 절대로 헤아릴 수 없는 절집의 내력과 풍경과 은밀을 이렇게 그림 같이, 한 폭의 풍경화처럼 절묘하게 잘 해석할 수 없다. 필자도 승려이고 시를 쓰는 사람이지만, 필자가 승려이고 시인이라는 것을 정말 부끄럽게 만든다.

아니나 다를까. 조지훈 시인의 학력을 보았더니 동국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찌 이리 불교를 깊이 읽고 해석해낼 수 있겠는가. '꾀꼬리 울음소리' 를 '앵음설법(鶯音說法)' 이라고 탁월하게 조탁해낼 수 있겠는가.

'앵음설법' 은 정말 기막힌 비유다. 꾀꼬리 울음소리를 설법으로 듣는 귀와 눈과 마음이 있었기에 조지훈 시인은 이 같은 절묘한 비유로 불교시를 써낼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스님들의 희로애락과 은밀을 은밀하게 관찰하고 분석하고 해석해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노수좌(老首座)는 오늘도 바위에 앉아 두 눈을 감은 채로 염주(念珠)만 센다./ 스스로 적멸(寂滅)하는 우주(宇宙) 가운데 먼지 앉은 경(經)이야 펴기 싫어라' 라는 구절은 스님들보다 더 스님다운 심경을 그리고 있다. 아무리 천재 시인이라고 해도 상상만으로는 도저히 이를 수 없는 경지다.(그래서 필자는 필시 조지훈 시인이 절집생활을 실제로, 꽤 했으리라 짐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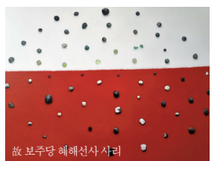
다시 오늘 소개하는 '고사(古寺) 1' 로 돌아가 보자. 필자는 이처럼 옛 절의 하루와 풍경과 교법(敎法)을 진실하고 절실하게 노래한 시를 보지 못했다. 이 시에서 '서역' 은 석가모니부처님이 태어나고, 불교를 탄생시킨 곳을 말한다. '깨달은 사람이 가는 곳', '극락세계', 또는 '서방 정토'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그 먼 곳에 도착하는 길의 거리가 '만 리' 이다. 만 리 먼 길을 가야 하기에 승려는 부지런히 가야한다. 부지런히 닦아야 한다. 그런데도 옛 절의 스님들은 옛 절[고사(古寺)]처럼 한가하게, 낮잠도 즐기며 게으르게, 한 발 한 발 가지 않는 듯 간다. 구름에 달 가듯이 간다. 그 끝에 '눈부신 노을(서방정토)' 이 있고 '모란(깨달음)' 이 있다. 그 피안(彼岸)을 찾아 오늘도 불제자들은 경(經)을 읽고 외며, 목어 속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조지훈의 불교시를 읽으면서 필자의 눈시울이 한없이 매운 까닭은? 눈물방울이 양 볼을 적신 까닭은? 필자가 입고 있는 잿빛 옷이 한없이 부끄러워진 까닭은? 그것은 아직도 '과실[도과(道果)]' 을 따지 못한 필자의 게으름과 갈애 탓이리라. 그 과실을 위해 오늘밤은 필자도 '웅 웅 웅 웅 웅.....' 울어야겠다. 경(經)에 낀 먼지를 걷어내고.

〈불교문학연구소장〉

흥륜사 故 寶珠堂 慧海 노스님 사리친견법회





이차돈 순교지로써 신라 최초 사찰인 경주 흥륜사에서는 2020년 입적하신 寶珠堂 慧海 禪師의 사리 친견법회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열반 후, 220과의 사리를 남기신 비구니계의 별, 慧海 노스님의 생전 수행을 사리 친견법회를 통해 생전 스님의 사상을 되새기게 될 자리에 걸음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불기 2566(2022)년 3월 향기로운 날
흥륜사 사부대중 합장

사리함 봉안기념 특별초청법문 : 혜국큰스님 (4월 24일, 오전 10시)

- 장소 : 흥륜사 금당 선방
- 기간 : 3월 19일 ~ 31일 까지 (오전 10시~ 오후 5시)
-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흥륜사
- 주관 : 경주황룡원신라문예센터
- 후원 : 국제신문, 부산일보, 불교신문, 법보신문, 현대불교, BTN불교TV, BBS불교방송, e-붓다, 맑은소리맑은나라
- 문의 : 흥륜사 054.773.3387 / 010.5616.3882

상담환영

- 빙의에 시달리시는 분 !!
- 신(神)내림 받기전에 신기운에 시달리시는분!
- 신을 받았어도 제대로 못하고 신기운 때문에 힘드신분!
- 신기운을 떼어내고자 하신분!

[상담대상]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가지 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 연예인, 연극인, 영화배우, 탈렌트, 가수등 마음이 여리고 순수하고 감정, 감성 중심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빙의와 신기운에 잘 접속되고 벗어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인생 전체가 불행해집니다! (예 : 만성우울증, 가위눌림, 불면증, 공황장애, 공포증, 불안장애등에는 반드시 빙의가 접속되어 있습니다!)
◉ 다 그런건 아니지만 직업상 시신을 자주 접하는 사건 현장 담당 경찰업무 하신분, 119대원, 소방업무 종사자, 장례식장 종사자 등 심약하신 분들은 빙의에 접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예 : 가위눌림, 악몽자주꿈, 불면증, 망자가 꿈에 자주 나타나는 경우, 외상후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 몸이 무겁고, 만성 피로감등)
◉ 이상행동, 어느 시점 이후 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등
◉ 희귀병(병원에서 낫지 않은), 조현병, 분노조절장애는 100% 빙의로 인한 것입니다! (감정기복 매우 심함, 묻지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빙의전문의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 (환자직접 오지않아도 됨) ⇨ 최고 전문가만 가능
◉ 문제해결, 증상해결 중심으로 상담
◉ 전생빙의치유, 마스터과정수료 ◉ 20여년 빙의, 신기운 천도 경력 노하우 갖춤
◉ 증세가 오래 되었거나 심한 경우는 일정기간 간격을 두고 천도정성과 사후 관리를 꾸준히 받으면서 가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원격사후관리 가능)

※ 전화 ·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전국 최고. 빙의치유. 천도. 신기운 제거. 차단. 벗어나기 전문상담원 제주불교금강선원

제주불교금강선원 ☎ 064-746-0789 오시는길 :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 3층